

개인기록 관리 방안 연구*

‘나의 아카이브(My Archive)’ 만들기

최 유 리** · 임 진 희***

1. 머리말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선행 연구
 - 3) 연구 범위 및 방법
2. 개인기록 관리에 관한 해외 사례
 - 1) 어느 가족의 개인 디지털 아카이브 만들기 프로젝트
 - 2) 미국 의회도서관의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 데이’
 - 3)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 컨퍼런스
3. 개인기록 컬렉션 구성 방안
 - 1) 나의 생애 분석하기
 - 2) 나의 활동과 기록 매핑(mapping)하기
4. 개인기록 관리 방안
 - 1) 나의 기록 평가·선별하기
 - 2) 나의 기록 분류·기술하기
 - 3) 나의 아카이브 만들기
5. 맺음말

* 이 논문은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졸업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제1저자, KEB하나은행 사료관리 담당자.

*** 교신저자,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투고일 : 2015년 12월 18일 ▪최초심사일 : 2015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2월 29일

[국문초록]

공공기록에 비해 개인기록은 스스로가 보존·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인기록의 관리 주체는 '개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개인이 자신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이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개인기록 관리방안을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하나는 하향식 접근 방식으로 자신의 생애를 분석하여 아카이브즈를 파악하고 이를 컬렉션으로 구성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각 시기별로 자신의 활동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생산·수집된 기록을 전자기록과 비전자기록에 따라 구분하는 개인기록 컬렉션 구성표를 제시했다. 다른 하나는 기록을 평가·선별, 분류·기술하여 자신의 '아카이브'를 만들어 관리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먼저 평가·선별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평가를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그리고 컬렉션 구성표를 바탕으로 개인이 생산·수집한 전체 기록을 기록군으로, 각 시기들을 하위 기록군으로, 각각의 사건이나 활동을 기록철로, 개별 기록들을 건으로 하는 분류체계를 수립했으며, ISAD(G)를 참조하여 개인기록 기술요소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아카이브로서, 포털 블로그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기존의 포털 블로그는 감사증적이 남지 않고 내보내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개인기록의 관리를 돕기 위한 '아카이브형 블로그'를 제시했다.

결론에서는 일상에서 개인이 자신의 기록을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기록관리'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공기록 관리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기록의 성

격을 고려한 새로운 기록관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주제어 : 개인기록, 사적기록, 일상아카이브, 생애기록, 라이프로그

1.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라이프로그’라는 신조어의 등장도 이를 방증한다. 이는 라이프(Life : 삶, 생활)와 로그(Log : 기록, 이야기)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문자 그대로 개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을 뜻한다. 즉, 블로그·SNS 등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것부터 일상을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까지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폰과 각종 웨어러블(wearable) 기기의 발달과 그에 따른 모바일서비스의 확산이 이를 가능케 했다. 따라서 아날로그 시절의 기록은 주체가 의도적인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주류였다면, 디지털 시대의 기록은 위와 같은 다양한 포착기 앞에 노출된 주체들의 움직임이 다양한 목적과 의도에 의해 기록화되고 있다.¹⁾

이처럼 일상에서 개인이 끊임없이 기록을 생산·수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는 가치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인기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

1) 임진희, 「개인아카이브 & 개인디지털아카이빙의 특성과 과제」, 제33회 명지대 실버렘플로키움 발표문, 2013, 2쪽; 심홍진, 「빅데이터와 라이프로그(Life-logging) : 현황과 전망」, 『ICT 인문사회융합 동향』 Vol.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42쪽.

도 아카이브나 기념사업회 등의 매뉴스크립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공공성이 담보된 명망가의 기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²⁾ 따라서 본 논문은 기록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한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의 기록에 주목하고자 한다.

평범한 개인의 기록도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는 역사적 리얼리티를 더욱 극대화 해주는 하나의 장치로써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³⁾ 실제로 2012년 미국의 의회도서관은 트위터 이용자들의 트윗을 영구보존하기 위해 트위터사로부터 그것들을 이관 받았다. 의회도서관은 이를 아카이빙하고 보존하는 것이 “미래의 연구자들이 오늘날의 문화 규범·대화·트렌드·사건에 대한 보다 큰 그림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⁴⁾ 이처럼 개인기록은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당대인의 생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개인기록은 지배집단의 권력 장악과 승리의 역사 등 공식화된 기억을 담고 있는 기록에 맞서 그 기억의 허구성과 왜곡을 폭로하고 역사적 진실을 복원하는 위치를 가진다.⁵⁾ 아울러 사회적 약자 등의 개인 기록은 고착화된 사회적 편견에 대항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2) 이와 같은 연구 편향성의 원인으로 김재호는 기록 보존공간의 한계를 지적한다. 즉, 아카이브 또는 매뉴스크립트 보존소가 모든 기록을 보존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등 공공성이 담보되는 개인의 기록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했다는 것이다 (김재호, 「웹 환경에서의 개인기록관리에 관한 연구-블로그를 중심으로」, 한신대 석사학위논문, 2011, 3쪽).

3) 김혜림, 「개인 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이승만 기록 통합 검색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제안」,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10, 21쪽.

4) Library of Congress, 'Update on the Twitter Archive At the Library of Congress', 2013.1(<http://blogs.loc.gov/loc/2013/01/update-on-the-twitter-archive-at-the-library-of-congress/>) 참조; 국내에서도 사료로서의 트위터의 가치를 주목했다. 이에 관해서는 설혜심, 「트위터와 미시사」, 『한국사학사학보』 제21집, 한국사학사학회, 2010 참조.

5) 정영란,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통해본 주제기록관(special subject repository)에 관한 연구 :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의 수집과 수집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04, 3~4쪽.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⁶⁾ 그리고 그 기록을 생산한 개인에게는 자신의 삶을 증거하고, 나아가 전 생애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공적 영역에서 보존·관리되는 공공기록에 비해 개인기록은 개인 스스로가 보존·관리하지 않는다면 쉽게 사라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개인기록의 관리 주체는 그것을 생산(수집)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개인기록의 선별·평가 기준은 개인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기록의 생산 맥락과 정보를 기술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인기록의 관리 주체는 ‘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개인 기록 컬렉션 구성 방안과 이를 토대로 개인기록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개인기록에 관한 연구는 크게 ‘개인 아카이브’ 관한 연구와 ‘개인 아카이빙’에 관한 연구로 나뉜다. 그 개념을 정의하면, ‘개인 아카이브’란 “특정 인물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해당 인물 및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관리하며, 대중들에게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기록관”을 뜻한다.⁷⁾ 그리고

6) Susan Schwartzberg는 정신지체 아동을 둔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했던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록들 - 사진, 신문에서 오려낸 기사, 기념품 - 을 모아 컬렉션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러한 기록들이 기관이나 의사, 교육이론가 등의 기록에 의해 만들어진 장애아동에 대한 오해와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아동들이 갈 곳은 보호시설 외에는 없다고 믿었던 소아과의사, 교육이론가의 신념이 틀렸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Susan Schwartzberg, “The personal archive as historical record”, *Visual Studies* Vol.20, No.1, 2005, pp.78-80).

7) 임진희, 앞의 글, 2013, 3쪽, 6쪽.

‘개인 아카이빙’이란 “사람들이 장기간에 걸쳐 특별한 의미를 갖는 문서들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실무”를 의미한다.

이 중 개인 아카이브는 구축 주체 및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기록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사회를 기록화하기 위해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의거하여 다수의 평범한 개인들의 기록을 수집하는 ‘일상연구형 아카이브’이다. 둘째, 기관·단체·개인 등이 후속세대에 교육적·감동적 가치를 전하고,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목적으로 유명한 개인의 노력과 업적, 전환점을 보여줄 기록을 수집하는 ‘유명한 기념형 아카이브’이다. 셋째,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개인적 필요에 따라 아카이빙하는 ‘일반인 개인 아카이브’이다.⁸⁾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개인 아카이브의 유형은 ‘일반인 개인 아카이브’이다. 그러나 개인 아카이브 및 아카이빙에 관한 선행연구는 ‘유명한 기념형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내용 면에서는 수집에서부터 서비스에 이르는 효율적인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하거나, 수집전략을 수립하여 컬렉션 구성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신윤화⁹⁾는 기록학 분야의 연구가 공공기록 이외에 종교, 기업 등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김달진문학관’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문학관 수집기록은 다양한

8) 임진희, 위의 글, 3~4쪽; 김진용도 임진희의 틀을 거의 따르고 있다. 다만, 김진용은 유명한 기념형 아카이브를 특정 유명한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춘 ‘유명인개별아카이브’와 기관에 지대한 역할을 했거나 지역에 공헌한 인물들의 기록에 초점을 맞춘 ‘개인통합아카이브’로 구분했다. 그는 ‘유명인개별아카이브’는 개인에 대한 생애사 연구를 통해 해당 기록의 수집 범위가 결정되는 데 반해, ‘개인통합아카이브’는 수집기관이 가지는 성격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기록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김진용, 「개인 아카이브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13, 16쪽).

9) 신윤화,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김달진문학관을 사례로」,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2007.

출처를 가지므로, 이질적인 수집물들을 초기에 수집정책을 통해 통제하고, 이후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서로 유기적인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집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화¹⁰⁾는 연세대 기록보존소의 ‘배민수 컬렉션’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수집·분류·메타데이터·활용 등을 아우르는 개인기록관리 업무프로세스를 제시했다. 또 개인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그들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림¹¹⁾은 소장처가 다양한 ‘이승만 아카이브’를 사례로 들어, 분산된 개인기록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분산된 기록의 내적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장처간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해당 개인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재정리하여 통합 관리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개인기록의 특징에 걸맞은 다양한 접근점을 지닌 검색도구의 개발과 기술항목의 재설계를 통해 기록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수¹²⁾는 당대 사람들의 정서와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매체로서 대중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중음악가 아카이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김광석’을 아카이빙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의 기록을 주제·시대·형태별로 분류하여 아카이빙 모형을 구축했다. 그는 이러한 개개의 아카이빙이 여기저기에서 진행된다면, 한국대중문화의 지형을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공주¹³⁾는 ‘월북화가 정현웅’의 생애를 조사하여, 기록물의 발생 예상

10) 이은화, 「아카이브즈 개인기록 컬렉션 관리에 관한 연구: 배민수 컬렉션 분석을 중심으로」,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09.

11) 김혜림, 「개인 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10.

12) 이형수, 「대중음악가 아카이빙 방안: 김광석을 중심으로」,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12.

13) 정공주, 「시각예술 작가 기록물 수집전략 및 기록정보 관리 연구: 작가 정현웅 사례를 중심으로」,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13.

맥락정보를 바탕으로 기록을 수집·분류·기술하여 작가의 기록물을 다양한 문화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다. 그는 작가의 기록물 및 기록정보관리는 시각예술 분야의 특수성과 기관 아카이브즈와는 다른 개인기록의 특징을 반영하여 기록 관리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개인 아카이브 및 아카이빙에 관한 연구는 주로 특정 분야에 공헌했거나 업적이 있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일종의 참조모델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이러한 편향성을 극복하고, ‘보통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아카이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일상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로 표출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박건홍¹⁴⁾의 연구이다. 그는 ‘일상 아카이브’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아카이브는 보통사람들의 ‘삶의 생산과 재생산’ 영역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고, 그들 삶의 일상성 속에 감추어진 자본주의적 소외현상을 밝혀내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주의시대 역사의 주체인 보통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재구성하기 위한 저수지로서 일상 아카이브가 요구된다고 말했다.¹⁵⁾

“보통사람들의 일상을 미세한 영역으로 범주화하며, 개인(집단)의 행위와 경험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개인(집단)의 일상적 삶을 기록화하는 것은 물론 인문적 관점에서 기록을 수집·평가·선별하여 보존하는 조직 또는 이를 위한 시설·장소”

최근에는 이러한 움직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개인의 삶을 기록화하는 것을 넘어서, 연구 자료로서의 일상 아카이브의 가치와 활

14) 박건홍,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제29호, 한국기록학회, 2011.

15) 박건홍, 위의 글, 29~30쪽.

용방안에도 주목하고 있다. 최효진과 임진희¹⁶⁾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에서 수집한 “5월12일 일기컬렉션”을 분석하여 복수의 생산자들이 쓴 일기들 간의 공통점과 경향성을 읽어내기 위한 시도를 했다. 이를 통해 일기쓰기 방법과 단어 등의 형식면에서는 언어학적·교육학적 차원의 연구가, 일기에 기록된 사실, 감정변화 등의 내용면에서는 본문에 담긴 객관적·주관적 요소로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시적 또는 미시적 접근이 가능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이 생산·수집한 기록들이 사료, 넓게는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상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 경향은 ‘개인’ 보다는 ‘집단(공동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⁷⁾ 기록학계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카이브가 역사적으로 사회 대중의 기억과 기록을 보존하기 보다는 특정 계층이나 권력의 기록만을 보존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비난”에 따른 것이다. 즉, 기록 관리의 가치는 사회 전체를 위해 설명책임성을 가지고 정체성, 사회 정의와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¹⁸⁾ 이러한 연구들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해 사회적 역사적 기억을 포괄적으로 기록화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 개인의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없는 기록들

16) 최효진·임진희, 「개인 일기의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와 전망 : “5월12일 일기컬렉션”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46호, 한국기록학회, 2015.

17) 권순명,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09; 김익한, 「마을 아카이빙 시론」, 『기록학연구』 제26호, 한국기록학회, 2010; 최윤진, 「성미산 마을 아카이빙 체계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11; 김민국, 「주민참여 지향 마을 아카이빙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12;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제33호, 한국기록학회, 2012; 손동유·이경준,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기록학연구』 제35호, 한국기록학회, 2013.

18) 윤은하, 위의 글, 7-8쪽.

은 배제되기 쉽다.

이처럼 개인기록 관리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유명한 기록 중심에서 보통 사람들의 일상기록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지만, ‘아래로부터의 기록관리’에 있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록 관리의 주체를 개인으로 상정하고, 그를 위한 기록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기록 관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선행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유념하면서, 개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 속에서 생산·수집한 기록을 하나의 컬렉션으로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외의 개인기록 관리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선행단계로써 컬렉션을 설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공기록의 관리방법과 표준 등을 참조하여, 개인기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평가·선별방법과 분류·기술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개인기록 관리에 관한 해외 사례

1) 어느 가족의 개인 디지털 아카이브 만들기 프로젝트

미국 의회도서관의 Mike Ashenfelder는 블로그를 통해 Vernon James과

그의 가족의 개인 디지털 아카이브 만들기 프로젝트를 소개했다.¹⁹⁾ 이 글은 개인이 아카이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상세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기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²⁰⁾

Vernon은 2005년에 퇴직하면서, 수년간 쌓인 슬라이드와 사진들을 스캔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스캐너를 구입하여 결혼사진을 비롯한 일생 동안의 사진들, 출생증명서부터 유아기 때의 것들, 지역 신문에서 작게 오려낸 조각들 등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1942년 일본 포로수용소에서 숨진 동생 Bob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와 수집품들도 스캔했고²¹⁾, 아내가 외국에 있을 때 그에게 보낸 편지들도 스캔했다. 또 아내가 1965년부터 써온 일기 중 35년 치의 일기도 스캔했다. 그의 작업은 점점 가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그는 스캐너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았으며, 스캔한 사진들을 정리하는 데 어떠한 체계도 갖고 있지 않았다. 스캐너는 해상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었으며, 스캔한 사진들은 뒤죽박죽 무더기 상태로 섞여있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그의 아들, Stan은 우선 아버지가 연도별로 폴더를 만들어 스캔파일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그 후에는 집안별로 파일들을 구분하여 조직화했다. 또 스캐너의 해상도를 재설

19) 'One Family's Personal Digital Archives Project'(2012.7.18.) - <http://blogs.loc.gov/digitalpreservation/2012/07/one-familys-personal-digital-archives-project/>

20) 국내에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기록을 정리한 사례에 관한 글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이 사례를 번역하고, 여러 지면을 할애하여 상세히 다루었다. 이는 이 사례를 통해서나마 연구자들이 간접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기록 관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

21) Vernon은 이 사진과 편지들을 Google+에 업로드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했다 ([https://plus.google.com/photos/112550082651118383845/albums/5436586553951916257](https://plus.google.com/photos/112550082651118383845/albums/5436586553951916257#photos/112550082651118383845/albums/5436586553951916257)).

정하고, 아버지가 파일들을 저장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드 드라이브를 사드렸다.

이렇게 정리된 파일들로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진에 캡션과 태그를 다는 것이 필수적이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Vernon은 스캐너에 딸린 S/W를 이용하여 사진에 열심히 코멘트를 달았다.²²⁾ 그러나 그 S/W는 사진 말미에 캡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의 오른쪽에 캡션을 새기고 있었다. 마치 펜으로 사진 위에 글씨를 쓴 것 같았다. 이로 인해 수백 장의 사진들이 훼손되었다. 그 해결책으로 Stan이 찾은 것이 ‘피카사(Picasa)’였다.²³⁾ 이는 다중 OS를 지원하는 크로스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Mac이나 아버지의 PC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 또 캡션이나 지오태그를 작성하는 데 표준포맷을 사용하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는 아버지의 프로젝트에서 가족 전체, 나아가 집안 전체의 프로젝트로 확대되었다. Stan은 사진들을 온라인에 올려 친척들이 사진에 캡션이나 태그를 달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이를 ‘친척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이라고 표현했

22) Vernon은 손가락을 수술해 타이핑을 잘 할 수 없었을 때에도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주는 S/W를 사용하여 캡션을 달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번거로움 없이 사진에 캡션이 자동으로 달리게 될지도 모른다. 최근 Google에서 컴퓨터가 사진을 보고 스스로 캡션을 만드는 ‘신경화캡션(Neural Image Caption)’ 기술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it/667692.html> 기사 참조).

23) 피카사는 2004년 구글에 합병된 기업 Picasa가 만든 S/W로, 디지털 사진을 손쉽게 정리하고 편집하여, 웹사이트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이다. 이는 색 조정, 제목현상 없애기, 자르기 등의 기본적인 사진 편집 기능뿐만 아니라, 얼굴인식 기능도 갖고 있다. 또 앨범, 인물, 폴더별로 사진을 분류해주는데, 인물별로 분류된 사진에 각 인물마다 이름을 넣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 인물의 이름을 등록하면 피카사가 자동으로 유사한 얼굴을 검색하여 그 인물의 앨범을 만들어 준다. 또한 사진에 태그를 달 수 있도록 하여, 태그별로 사진을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밖에 피카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http://en.wikipedia.org/wiki/Picasa> 참조.

다. 이 태그들로 인해 Vernon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온라인에서 그 사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²⁴⁾

이 프로젝트를 통해 Vernon과 Stan은 2만 건 이상을 디지털화했다. Stan은 “아버지의 작업이 가족을 위한 일일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Mike Ashenfelder는 사진이 어떤 다른 매체보다도 더 많은 기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Vernon의 가족들은 사진들을 찾아내고 그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것은 그 복사본들이 도처에 퍼지게 함으로써 그 사진들을 보존하는 것을 돕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Vernon을 비롯하여 자신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 아카이빙에 대한 소비자친화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Stan 역시 사람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개인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조언할 수 없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아카이빙에 필요한 대부분의 도구들이 사용하기에 쉽지 않다는 것이다. 스캐닝의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과 폴더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²⁵⁾

기록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개인이 자신의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복잡하게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의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일상적으로 개인의 기록이 생산·축적되고 있는 데 반해, 개인이 기록 관리에

24) 독일 어느 부대의 아키비스트는 Vernon이 찍은 사진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에 그 사진을 게시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25) 그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피카사를 파일 스토리지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피카사는 Google+와도 매우 잘 통합되며, Google+로 사진들을 동기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다.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단초가 된다.

2) 미국 의회도서관의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 데이’

미국 의회도서관은 해외에서 개인기록 관리와 관련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관 중의 하나로,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2000년도부터 ‘국가디지털정보 기반구축·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사라질 위험이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하고, 그것을 장기보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²⁶⁾ 의회도서관은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0년도부터 개인이 디지털 형태로 된 자신과 가족들의 추억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매년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²⁷⁾

〈그림 1〉 미국 의회도서관의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 데이’ 행사 모습



(좌) 레코드의 보존과 아카이빙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가 답변하고 있는 모습

(우) 전문가가 아날로그 사진과 디지털 사진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모습

26) “PRESERVING OUR DIGITAL HERITAGE : Plan for the National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reservation Program”, Congress of Library, 2002, p.1 (http://www.digitalpreservation.gov/documents/ndiipp_plan.pdf); http://en.wikipedia.org/wiki/National_Digital_Information_Infrastructure_and_Preservation_Program 참조.

27) <http://www.digitalpreservation.gov/personalarchiving/index.html>

의회도서관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생애를 담고 있는 가치 있는 정보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서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홈비디오는 색이 바랄 수 있으며, 사진은 화재로 소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S/W와 장비 등에 의존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였다. 디지털 기술은 나날이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행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사진·문서·녹음된 음성이나 그 밖의 자료들의 보존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기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²⁸⁾

또한 여타 다른 기관에서도 이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키트(kit)를 제공하고 있다.²⁹⁾ 키트는 계획-조직-홍보-운영 순으로 각 단계별로 행사 준비를 위해 수행해야 할 일들과 이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포스터 등의 각종 서식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아래 표와 같이 매체의 유형별로 개인의 디지털 자료들을 관리하는 방법,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 시리즈로 'E-mail 아카이빙'을 소개하고 있다.

28) http://www.digitalpreservation.gov/news/2010/20100519news_article_personal_archiving_day.html

29) http://digitalpreservation.gov/personalarchiving/documents/PADKit_v1.pdf; 의회도서관에서는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 데이'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Snow Byte and the Seven Formats'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이다. 이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패러디한 것으로,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노후화(마녀)가 독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사과 폰을 Snow Byte(백설공주)에게 준다. 그녀는 그것을 열자마자 혼수상태에 빠진다. 7개의 포맷(WARC, TIFF, TXT, PDF, JPGE, MPEG, DOC, 일곱 난쟁이)이 그녀를 발견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어플리케이션은 독자포맷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더블린(Dublin, 왕자)이 나타나, 그 어플리케이션의 포맷을 XML로 변환시키자, 공주가 깨어난다는 내용이다.

〈표 1〉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 데이’ 키트의 개인 아카이빙을 위한 Tip들

구분	세부 내용
매체별 개인 디지털 자료 관리 방법	- 개인 디지털 사진 관리 방법 - 개인 오디오파일 관리 방법 - 개인 디지털 비디오파일 관리 방법 - 개인 전자메일 관리 방법 - 개인 전자기록 관리 방법 - 개인 웹사이트, 블로그, 소셜미디어 관리 방법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정보	- 카메라에서 컴퓨터로 사진 옮기는 법 - 테이프, DVD, 카메라에서 컴퓨터로 파일 옮기는 법 - 개인 컬렉션 스캔 방법 - 디지털 저장매체의 수명은 얼마나 오래갈까?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 시리즈	- E-mail 아카이빙

위에 열거된 내용 중 매체별로 개인 디지털 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체의 유형에 따라 관리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파악-결정-조직화-복사 순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다만, 오디오파일이나 전자메일, 웹사이트, 블로그, 소셜미디어와 같이 데이터가 웹에 위치한 경우에는 내보내기(Export)하여 별도로 저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2〉 개인 디지털 자료 관리 절차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휴대전화·카메라·PC 등의 전자기
기나 CD·DVD 등의 저장매체를 조사하여 자신의 디지털 자료가 어디
에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중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
나, 장기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별한다. 이때, 여러 버전의 파일
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질이 좋거나, 최종 편집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은 파일들을 조직화하고 기술하는 단계이다. 우선 각 파
일에 이름을 붙이고, PC에 디렉터리나 폴더 구조를 만들어 파일들을 옮
긴다. 그 후에는 그 구조와 파일에 관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선별
된 파일들을 최소 2개 이상의 매체에 복사한다. 이를 테면, 하나는 PC
에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독립된 매체(DVD·CD·외장하드·USB)나 인
터넷 스토리지에 보관하는 것이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저장된 파일
들이 읽히는지 확인하고, 자료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5년 마다 혹은 필
요할 때마다 새로운 매체에 복사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행사 참석자들의 코멘트나 질문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것이다. 즉, 자신의 기록을 아카이빙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인 것이다. 따라서 의회도서관은 이 내용들이 개
인 디지털 아카이빙 프로젝트에 착수한 사람들에게 시작점을 제공한다
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갖고 있는 디지털 자료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아날로그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것에서부터 개인의
아카이빙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키비스트에게는 너
무나 간단하고 소소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이 정보들이 궁극적으로는
채 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범주에 들어오지 못한 민간기록들을 관리하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 컨퍼런스

미국에서는 ‘Saving Our Present for the Future : Personal Archiving’을

시작으로 매년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개인기록의 생산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2010년도 컨퍼런스 안내문에서는 개인기록이 디지털화되고, 디지털 정보의 생산과 획득이 일상화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따라서 이 컨퍼런스는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 기관과 개인을 위한 지침과 연구의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컨퍼런스 개최에 앞서 프로그램 기획위원회에서는 영역을 망라하여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관한 연구제안서를 받는다. 그러나 사전에 몇 가지 의제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 컨퍼런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주어졌다.³⁰⁾

- (개인 디지털 아카이브)의 보존, 접근, 공개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회적 규범이 부각되고 있는가?
- 개인 컬렉션이 간단한 유형에서 움직이는 이미지와 같은 리치미디어(rich media)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 현재 개인 컬렉션 보존을 위해 제시된 방법들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개인과 기관 모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 셀프아카이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도구와 서비스들이 필요할까?
- 향후 발달할지 모르는 개인 아카이브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모델은 무엇일까?
- 장기적인 (디지털) 저작권 관리에 관한 이슈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디지털) 저작권 관리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인식하지 못한 이해당사자들이 있는가?

30) <http://pda.nkrabben.com/conference/pda-2010/about>

- 우리는 개인 자료의 손실을 잘 예측(판단)할 수 있을까?
-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들은 개인자료 수집에 대한 새로운 책임감을 갖는가?
- 이미 실패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실패할 것 같은 (개인 자료) 처리방법들에 대해 일반화할 수 있는가?
- 시민, 학자, 창작자, 배우들의 개인 컬렉션을 보존하길 원하는 문화유산기관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을 위한 옵션들은 무엇이 있는가?
- 너무 좋거나 혹은 과도하게 적용된 아카이빙시스템 설계의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 다가오는 해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무엇이 있을까?

위원회에서 제시한 질문들을 살펴보면, 개인기록의 유형이 점점 디지털화되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수집하고 보존할 것인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방향이 단순히 아키비스트 등 전문가들의 학문적 차원의 논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컨퍼런스는 실제로 일상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아카이빙 방법이나 도구의 사용, 자신의 아카이빙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하다.³¹⁾

올해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가족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조직화

31) 이와 관련하여 2014년도에는 Picasa 사용방법(“Using Picasa to its Fullest Potential to Ensure Long-Term Management of Digital Photos”)이나 무료 혹은 저렴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디지털 사진들을 보존하는 방법(“Preserving your digital photos using free or low cost software”) 등이 소개되었다; 일례로 앞서 언급했던 Vernon의 사례도 2011년도 컨퍼런스에서 그의 아들 Stan James가 “The Smallest Day: A nerd and his dad set out to digitize the family archives”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기도 했다(<http://pda.nkrabben.com/presentation/pda-2011/smallest-day-nerd-and-his-dad-set-out-digitize-family-archives>).

하고 목록화하는 방법과 메타데이터를 개발하는 방법’, ‘나의 가족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 내가 피카사·워드프레스·임베디드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 ‘클라우드소싱 문화 : 큐레이션·참여·도큐멘테이션으로써의 인스타그램’, ‘대학 캠퍼스의 개인 디지털 아카이빙 데이에 대한 고찰’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³²⁾

이상의 사례들은 기록학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댄 관리의 틀보다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기록관리 팁(Tip)을 중심으로 개인기록 관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본 논문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음의 3장과 4장에서는 기록학과 팁 사이의 경계에서 개인이 자신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3. 개인기록 컬렉션 구성 방안

1) 나의 생애 분석하기

공공기록 관리영역에서 조직의 기록관리 체계 수립에 앞서 행하는 작업은 ‘업무 분석’으로, 그 목적은 업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록을 생산하고 획득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다.³³⁾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기록 관리에도 일종의 업무 분석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나의 생애 분석’이다. 즉, 기관의 업무를 분석하여 생산할 기록을 연구하듯이 자신의 삶을 분석하여 주요한 사건들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했을 법한 기록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주요 활동 정리는 기록의 총체적인 분류체계를 설정할 때에도 매우 중

32) <http://personaldigitalarchiving.com/program/>

33) 한국기록관리학회 엮음, 「기록학용어사전」, 역사비평사, 2008, 159-160쪽.

요한 원천이 된다.³⁴⁾

그렇다면 ‘나의 생애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는 자신의 생애를 먼저 몇 개의 생애주기(life cycle)로 구분하고, 각 시기를 세분화 하여, 그 시기에 발생한 주요한 사건이나 활동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생애주기를 구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의 8단계 생애주기 모델인 <영아기(0~2세)> - <유아기(2~3세)> - <유치기(4~6세)> - <아동기(6~12세)> - <청소년기(13~18세)> - <청년기(18세~30세)> - <장년기(30~65세)> - <노년기(65세 이상)>를 들 수 있다.³⁵⁾ 그러나 반드시 각 시기를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은 ‘환갑’을 노년기의 시작점으로 잡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직 환갑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출산으로 손주가 생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시점을 노년기의 시작점으로 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삶을 구성해온 ‘주요한 삶의 영역’을 몇 가지 주제적 차원으로 나누어 생애주기를 구분할 수도 있다. 이를 테면, <가난한 유년기> - <해외 노동자로서의 삶> - <가족과의 불화와 단절> - <생과 사의 접면으로서 알코올중독자의 삶> - <거리 노숙인으로서의 삶>과 같은 식이다.³⁶⁾ 이 밖에도 가족 내 혹은 조직이나 사회에서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도 생애주기 구분이 가능하다.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을 예로 들면 <결혼 및 출산 전> - <결혼 직후> - <막내 2세~초등학교 졸업 전> - <막내 중학교 입학 이후> - <자녀의 결혼>으로 구분할 수 있다.³⁷⁾

34) 김진용, 앞의 글, 2013, 84~85쪽.

35) 정옥분, 『진 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학지사, 2007, 68쪽.

36) 석희정, 『거리 노숙인들의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14, 46~47쪽, 53쪽.

37) 김유경, 『생애단계별 여성의 취업행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199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40~41쪽.

이처럼 생애주기는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를 구분할 때, 자신의 생애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활동 혹은 삶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나 활동 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생애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사건이나 활동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가족구성원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발생하여 본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이나 활동이 나의 생애에 미친 영향력이나 발생한 시점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를 정하는 것이다.³⁸⁾

- ① 나의 외적(신체적)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나 활동은 무엇인가?
- ② 나의 내적(심적)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나 활동은 무엇인가?
- ③ 나의 공간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나 활동은 무엇인가?
- ④ 나의 신분(지위)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나 활동은 무엇인가?

그런데 전 생애를 모두 분석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구축하고자 하는 아카이브의 목적을 고려하여, 아카이빙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생애 분석이 필요하다. 만약, 은퇴 이후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카이브를 만들고자 한다면 전 생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결혼을 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을 기념할 목

38) 일반적으로 ①에는 수술이나 질병, 재해 및 사고, 다이어트 등이 있을 수 있으며, ②에는 탄생과 죽음, 만남과 이별 등이 있을 수 있다. ③에는 이사(이민), 전학, 입양, 파양, 임대, 수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④에는 결혼, 이혼, 진학, 퇴학, 취업, 이직, 복직, 퇴직, 창업, 면허 및 자격증 취득, 파산, 복권 당첨, 선거, 승진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①~④까지 엄밀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업이나 결혼을 통해서도 공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질문과 그에 대한 사례 제시는 자신의 기록을 정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나간 생애를 쉽게 떠올리게 하고, 그 기억의 가치를 뺏어나갈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적으로 아카이브를 만든다면 연애, 결혼 혹은 출산 시점까지의 생애만을 서술해도 무방하다. 이처럼 생애 분석은 전 생애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특정 시기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즉, '나의 생애 분석' 작업은 ① 아카이브 구축 목적 수립 → ②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아카이빙 범위 설정 → ③ 아카이빙 범위에 해당하는 생애 구분 순으로 진행할 수 있다.

생애주기를 구분하고, 그것을 세분화한 다음에는 각 시기별로 자신의 주요 활동이나 사건들을 정리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기록이 발생하는 개인의 활동을 '사적활동'과 '공적활동'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르면, 사적활동이란 말 그대로 "개인의 사생활"을 의미하며, 공적활동이란 "사회구성원으로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공적 업무"를 뜻한다. 이외에도 개인의 직업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작품 활동'이나 '학문 활동'과 같이 기록이 발생하는 별도의 활동범주를 설정하기도 한다.³⁹⁾

그러나 개인의 활동을 공적활동과 사적활동으로 단순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공적활동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⁴⁰⁾ 더욱이 생애분석을 통해 자신의 활동을 파악하는 이유가 기록이 발생하는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각각의 활동들이 향후 기록을 분류하는 하나의 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와 같은 활동 구분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이러한 활동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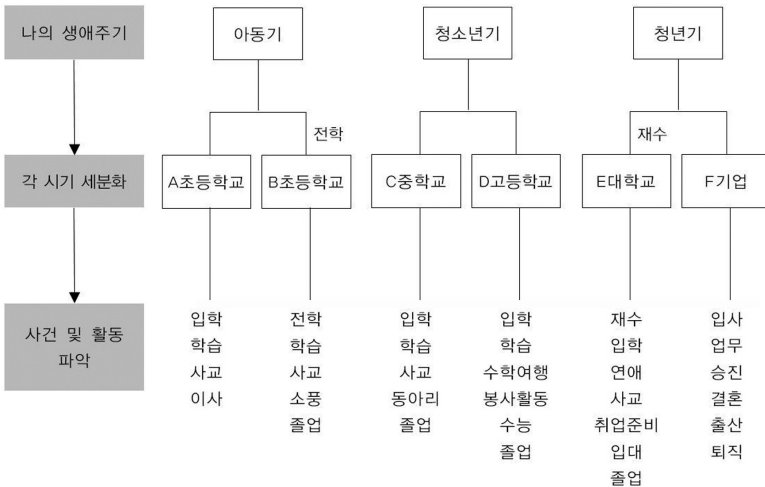
39) 권이혁 외, 「대한민국학술원 기록관 구축 전략 연구」, 대한민국학술원, 2010, 73쪽, 76쪽; 정공주, 앞의 글, 2013, 38~39쪽.

40) 가령, 사회가 부여한 지위로 인해 활동을 하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일기로 적는다면 기록의 맥락으로 볼 때는 그 일기를 공적 분류, 사적 분류, 혹은 공·사적 분류 혼합 형태로 분류를 해야 하는가? 기존의 공적영역, 사적영역으로 분류한다면 신문에 실린 기록은 공적 활동의 영역의 연장선상으로 생산한 기록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신문에 실린 내용과 공적인 과급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생산자의 생각을 담은 기록이라 할 수 없다 (김혜립, 앞의 글, 2010, 33~34쪽); 「대한민국학술원 기록관 구축 전략 연구」에서도 훈·표창의 경우 공적 활동의 결과 생산된 기록일 수 있으나 개인의 생애에 있어 사적인 기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권이혁 외, 같은 책, 73쪽).

분을 제시한 것은 그 연구들이 다루는 기록들이 연구자 본인의 기록이 아닌 제3자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즉, 연구 대상자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속속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기록의 발생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적활동과 사적활동이라는 구분 틀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활동들을 파악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신의 생애를 직접 분석하고, 활동이나 사건을 정리할 때에는 각 시기에 발생했던 혹은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활동이나 사건들을 명확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를 테면, 아래 그림과 같이 ‘입학’, ‘학습’, ‘이사’, ‘여행’, ‘연애’, ‘입대’, ‘결혼’ 등의 단어로 적는 것이다. 여기에 더 살을 붙여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활동을 함께 했던 ‘사람’이나, 활동이 벌어진 ‘장소’, 그 사건이나 활동이 발생했을 때의 ‘느낌’ 등을 같이 문장으로 기술해주는 것도 좋다. 이는 향후 기록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을 수행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나의 생애 분석하기



‘나의 생애 분석’은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넓은 시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축적된 개인기록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만을 분석의 대상으로는 삼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혹은 향후 어떤 일상의 삶이 기록으로 남겨져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애를 분석하는 것보다 현재 자신의 ‘하루’를 분석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⁴¹⁾

2) 나의 활동과 기록 매핑(mapping)하기

나의 생애 분석을 수행한 후에는 그로부터 도출된 활동과 기록들을 매핑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각 활동에서 생산되었으리라 예상되는 기록물을 파악하거나, 각 활동에서 생산되어 ‘실제로 자신이 갖고 있는 기록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유명한 아카이브 컬렉션을 구축할 때에는 그 인물의 생애 조사를 바탕으로 각 시기별로 ‘발생예상 기록물’을 파악하기도 한다. 이는 수집되어야 할 기록물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41) 자신의 하루를 분석하는 것은 레코드 단계의 기록 관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아카이브즈 단계의 기록들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해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 다만, 하루를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틀로써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보고서(2009)’(http://kosis.kr/ups/ups_01List01.jsp?grp_no=1005&pubcode=LS&type=) 항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 보고서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행동들을 ① 개인유지, ② 일, ③ 학습, ④ 가정관리, ⑤ 가족 보살피기, ⑥ 참여 및 봉사활동, ⑦ 교제 및 여가활동, ⑧ 이동 등으로 분류하고, 그 하위에 중분류와 소분류를 두었다. 그런데 하루를 분석할 때 유의해야하는 것은 평일과 주말의 다른 생활패턴, 여느 날들과 다른 하루의 일상 등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⁴²⁾ 따라서 개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록들을 정리할 때에는 이러한 절차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의 어느 생애시기에 기록이 전혀 없거나, 누락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생예상기록물을 파악하여, 이를 수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절에서 다루는 매핑은 실제로 자신이 갖고 있는 기록물을 직접 확인하고 생애 분석에서 파악된 활동들과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일단 자신의 기록들이 어디에 흩어져 보관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그림 4〉 개인 기록의 다양한 보관처들



①



②



③



④

① 쿠키박스에 담긴 사진들

② 신발상자에 보관된 편지, 쪽지들

③ 삼공파일에 보관된 일기장들

④ 클리어파일에 보관된 상장과 졸업장

기록은 종이문서의 형태로 책상서랍이나 책꽂이, 상자, 앨범 등에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PC나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전자 기기 안

42) 정공주, 앞의 글, 2013, 37~42쪽; 권이혁 외, 앞의 글, 2010, 75쪽.

에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블로그나 SNS,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활동과 기록을 매핑할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종이기록 이외에도 이러한 전자기록의 존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어느 시기에 어떤 종류의 전자 기기를 사용했는지, 그것으로 생산된 기록의 유형이 무엇이 있는지, 어느 시기에 블로그나 SNS에 가입했는지 등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이는 기록의 유형별 수량이나 보관 장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이 보편화되기 이전 시기에는 사진들이 대부분 ‘인화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미지 파일 형태’의 사진들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기록의 유형을 전자기록과 비전자기록으로 나누어 파악하는 것은 향후 기록의 디지털화 등 보존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유용하다.

나의 활동과 기록을 매핑할 때에는 생산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개인기록이라고 해서 기록의 생산자가 본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할 수 있다.⁴³⁾ 개인의 생애에 따라 그 생산자가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족·지인이나 언론·출판·학계, 기관·조직 등이 자신에 관하여 생산한 기록들이 존재할 수 있다.⁴⁴⁾ 또한 이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기록의 수량이다. 기록의 수량이 적을 때에는 상관없지만, 기록의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이 혼자서 기록을 파악하고 매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타협이 불가피하다. 즉, 분석한 생애의 모든 시기의 기록들을 한꺼번에 다 파악하여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비교적 기록의 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부터 기록의 현황을 파악하고 매핑하라는 것이다.

43) 정공주, 앞의 글, 2013, 40쪽.

44) 권이혁 외, 앞의 글, 2010, 73쪽.

이때 기록의 상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만약, 어떤 시기의 기록들이 생산된 지 오래되거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아 훼손도가 심하다면, 수량의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매핑하여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면, 개인 아카이브 컬렉션 구성에 필요한 요소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개인 아카이브 컬렉션 구성요소

구분	구성요소	설명
편 년 사	생애	- 개인에 대한 생애 정보 - 생애주기는 나이나 주제, 역할 등에 따라 구분함
	개인	- 본인이 생산한 기록
생 산 자	가족·지인	- 가족·지인이 본인과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 등
	언론·출판·학계	- 언론·출판·학계에서 본인에 관해 생산한 기사, 도서, 논문 등
	기관·조직	- 기관·조직에서 본인과 관련해 생산한 행정, 재무, 인사, 기록 등
기 록 범 주	A활동 및 사건	- 각 시기별 자신의 주요한 활동이나 사건들 - 각 활동이나 사건으로 인해 생산되는 기록의 유형
	B활동 및 사건	
	⋮	
기 록 유 형	전자기록	- 핸드폰,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 기기에 들어있는 각종 기록물 - 웹사이트, 블로그나 SNS 등에 존재하는 웹 기록물 - 온라인 스토리지에 소장된 각종 전자기록물 - CD, DVD 등 광디스크류
	비전자기록	- 종이류 - 사진, 필름류 - 자기매체류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플로피디스크 등) - 각종 박물관 ⁴⁵⁾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개인 아카이브 컬렉션 구성표를 만들 수 있다.

45) 개인적으로 아끼는 소장품, 활동을 하면서 주로 사용했던 도구 관련 소장품, 기관이나 조직에서 활동 시 사용했던 공간 구성품 등이다 (권이혁 외, 같은 책, 74 쪽 참조).

〈표 3〉 개인 아카이브 컬렉션 구성표와 예시

구분	활동 및 사건	전자기록	비전자기록
A 시 기	A활동 및 사건		
	B활동 및 사건		
	C활동 및 사건		
B 시 기	A활동 및 사건		
	B활동 및 사건		
	C활동 및 사건		
	D활동 및 사건		
	⋮		

구분	활동 및 사건	전자기록	비전자기록	
아 동 기	C 초 등 학 교	학습	-	노트, 시험지, 성적표 등
	사교	디지털 카메라 사진	서신, 교환일기, 사진 등	
	소풍	디지털 카메라 사진	놀이동산 입장권 등	
	학예회	사진, 학예회CD	학예회 초대장 등	
청 소 년 기	M 중 학 교	입학	-	사진
	학습	-	노트, 시험지, 성적표, 메모 등	
	사교	모바일 메신저 채팅기록	서신, 쪽지 등	
	운동회	Facebook에 올린 사진	반 단체티셔츠, 사진 등	
경시대회	경시대회 수상자 명단 파일	상장, 트로피, 사진 등		

4. 개인기록 관리 방안

1) 나의 기록 평가·선별하기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을 보관하는 데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량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기록을 많이 저장하고 관리하게 되면 정보 과잉의 문제와 쓰레기 정보에 의한 비효율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⁴⁶⁾ 따라서 개인기록도 평가하여 아카이브에 보존할 기록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학계에서 개인기록이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기록학의 평가 이론들도 대체로 개인기록의 평가를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기록의 평가를 다루는 전문 문헌도 거의 없고, 개인기록 중 어떤 자료가 보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을 다루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다.⁴⁷⁾

현행 연구에서는 웰렌버그의 1차 가치와 2차 가치를 개인기록에도 적용하여, 개인의 필요성에 따른 가치를 1차 가치로, 1차 가치가 소멸된 이후에 개인의 삶을 재현하는 정보로서 지속적인 가치를 2차 가치로 정의하기도 했다. 즉, 이러한 가치판별을 토대로 개인의 활동을 증거 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자는 것이다.⁴⁸⁾ 이러한 평가 방법도 개인기록을 평가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긴 하다. 그러나 개인이 단순히 자신의 삶을 재현할 수 있는 증거적 가치만을 이유로 기록을 보존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기록의 평가·선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즉, 정서적/감성적인 측면에서 “명확히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개인적으로 특정 문서에 대해 애착이 있는 경우”이거나, “문서 생산에 들인 시간과 노력, 기억, 이력” 때문에, 혹은 “기억을 용이하게 하고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감상적인 아이템(sentimental item), 애착을 느끼게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기록을 보존하기도 한다.⁴⁹⁾

이처럼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까지 고려하여 모든 개인기록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개인기록의 평가·선별 기준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개인기록의 평가·선별 시에 중요한 것은 우선 기록의

46) 임진희, 앞의 글, 2013, 11쪽.

47) Riva A. Pollard, “The Appraisal of Personal Papers : A Critical Literature Review”, *Archivaria* 52, 2001, p.137, p.140.

48) 김재호, 앞의 글, 2011, 23쪽.

49) 임진희, 앞의 글, 2013, 5~6쪽.

가치를 한번 선별하여 영구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일회성 평가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맥락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 기록의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이 생성될 수 있었던 배경과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평가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⁵⁰⁾

일상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에서는 평가에 이를 적용하여, 단계별 평가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있다. 개인기록은 일면 일상 아카이브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개인기록의 평가·선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된 단계 모형은 수집전략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평가 대상의 범위를 좁혀가면서 여러 차례 평가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모델로서, 최대한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현된 프로세스이다.

〈그림 5〉 기록의 단계별 평가 프로세스



50) 김명훈, 「메뉴스크립트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사례 연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8권 제1호, 한국기록관리학회, 2008, 48~49쪽.

1단계에서 6단계에 이르기까지 같은 기록을 놓고 그 맥락에 따라 단계별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령, 1, 2단계에서 평가자는 기록물이 수집전략과 주제의 범주에 부합하는가를 평가하여 전혀 관련 없는 기록을 폐기대상으로 제외시킨다.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 2차 평가는 기록의 유형에 대한 가치 평가이다. 즉, 기록이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는가에 따라 높은 가치와 낮은 가치로 기록을 분류하는 것이다. 3차 평가에서는 개별 기록의 내용이 얼마나 보존가치를 갖는가를 평가한다. 최종단계에서는 앞선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록의 보존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⁵¹⁾

이를 개인기록 평가에 적용해보자. 첫 번째 평가 시에는 ‘나의 기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나의 기록이 아닌 것을 골라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이 생산된 맥락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떼면, 사진의 경우 단순히 사진 속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이 생산된 활동이 나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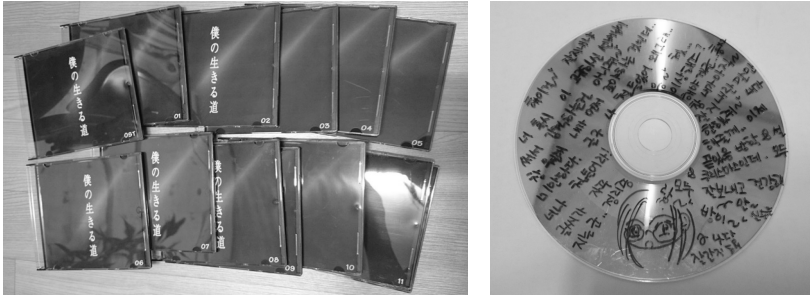
위와 같은 기준으로 자신의 기록을 선별하여 한 번 걸러낸 후, 다시 기록의 유형에 따라 기록의 가치를 구분하는 두 번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기록과 달리 개인기록의 유형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의 기록이 더 중요하다고 제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공공기록에서는 “통상 성명서가 구매 영수증에 비해 높은 보존가치를 갖는 것은 상식”⁵²⁾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개인에게는 ‘사연 있는 중요한 구매 영수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한 유형의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생산된 활동의 중요성에 따라 보존가치가 더 낮은 기록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⁵³⁾

51) 이경준, 「일상 아카이브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12, 67-68쪽.

52) 이경준, 위의 글, 68쪽.

세 번째 평가 시에서는 개별 기록이 담고 있는 내용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생산 맥락에서 내용의 중요도를 판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용과 별개로 기록물 그 자체의 형태로 인해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기록의 ‘실물 가치(intrinsic value)’를 평가해야 한다. 아래 사진과 같이, 드라마를 CD에 구운 것이라서 내용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친구가 직접 만들어준 CD케이스 표지라서 의미 있는 기록, 평범한 안부 인사를 담고 있지만 여느 편지들처럼 종이가 아닌 CD에 적힌 것이라서 독특한 개인 기록들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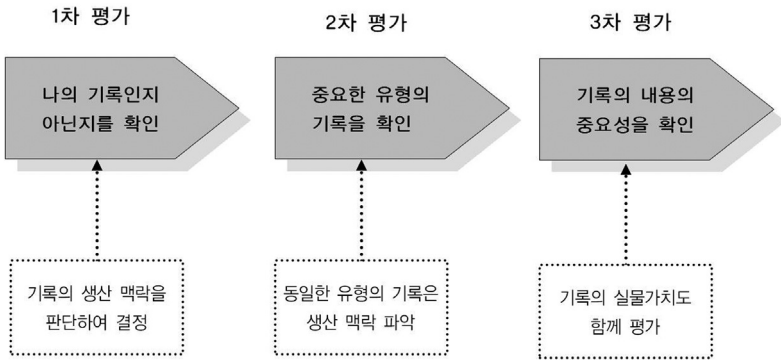
〈그림 6〉 실물 가치를 지닌 개인기록물 (예시)



이처럼 위에서 제시한 개인기록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개인기록에 대한 평가·선별을 수행할 수 있다.

- 53) 이를 테면, 공공기록 중에서도 ‘회의록’은 아키비스트가 보존해야 하는 중요한 유형의 기록의 하나이다. 그러나 직원 휴게실 보수작업 같은 중요하지 않은 활동에 관한 모임의 회의록은 보유할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F. General Ham 저,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2002, 103쪽).

〈그림 7〉 개인기록 평가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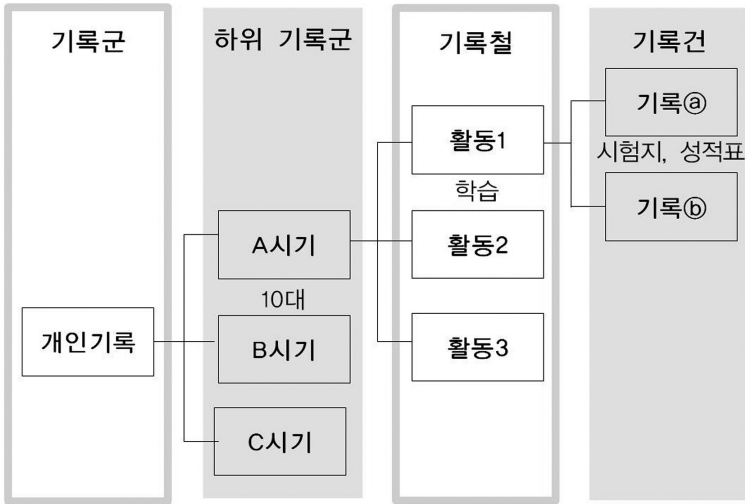


2) 나의 기록 분류·기술하기

아카이브에 보존할 기록을 선별한 후에는 아카이브에 구현할 기록의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앞에서 만든 개인 아카이브 컬렉션을 바탕으로 분류 체계를 설정하면, 아래와 같은 형태로 기록을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개인이 생산·수집한 전체 기록을 기록군으로 설정하고, 그중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기들을 하위 기록군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각각의 사건이나 활동을 기록철로 설정하고, 개별 기록들을 기록건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때,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 주제나 동일한 형식을 가진 기록철들을 시리즈로 묶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개인 아카이브 컬렉션의 규모나 특성에 걸맞게 유동적으로 분류체계를 설정할 수 있다.

분류체계를 설정한 후에는 각각의 기록계층을 중심으로 기록에 대해 기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기록의 생산·수집자인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가족, 지인, 그 외의 이용자들-도 기록의 생산 맥락을 파악하고, 기록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기록 기술에도 ISAD(G)의 다계층 기술의 원칙이나 기술요소를

〈그림 8〉 개인기록 분류체계 예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기록의 기술을 굳이 기술표준의 틀에 끼워 맞추는 필요는 없다. 기술표준은 공적영역의 아카이브에서 그 행위(업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설명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록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⁵⁴⁾ 그러나 개인기록의 기술은 기록에 담긴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개인기록의 기술에는 풀무학교 전공부 10주년 컬렉션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이들이 채택한 기술 방법론은 이야기 기술(Narrative Description)이다. 즉, 어떤 정해진 기술 요소 없이 에세이 형식의 글이나 자막 내레이션이 있는 영상을 통해 자신의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영남

54) 조은성,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 37호, 한국기록학회, 2013, 97-98쪽.

은 이러한 기술 형식은 “개인별 층차가 있고 어떤 통일성조차 보이지 않는 자의성마저 보이겠지만, 그래서 비록 객관성의 신화에는 닿지 못하겠지만 풀무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기술서”라고 말한다.⁵⁵⁾ 즉, 그 자신이 기록의 생산자이자 동시에 아키비스트이기 때문에, 표준과 같은 틀을 따르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만들어 낸 기술서는 그 기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다른 외부 사람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위와 같이 분류한 개인기록을 기술한다면, 먼저 하위 기록군 단위의 각 시기에 관해 전반적으로 기술하고, 철 단위의 활동들에 관해서는 각각의 기록 건을 중심으로 그에 얽힌 사연이나 기억에 남는 활동 등을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내러티브 형식의 기술방법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기록계층 혹은 개별 기록 건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 요소를 선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ISAD(G)의 기술 요소들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기록 기술 요소를 제안해본다.

〈표 4〉 개인기록 기술 요소

영역	요소	설명
식별영역	식별자	-기록의 식별번호
	제목	-기록의 제목
	일자	-기록의 생산 수집일
	기술계층	-기술하는 기록계층
	기록매체	-전자/비전자 (매체 유형) -파일포맷, 용량, 크기 등
맥락영역	생산자	-기록의 생산자
	기록관리이력	-보관이력 -디지털화 유무 및 일자

55) 이영남, 「공동체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제31호, 한국기록학회, 2012, 17~20쪽.

내용과 구조 영역	내용	-기록계층이 담고 있는 내용 설명 -관련 인물 (기록에 등장하는 이름이나 인물에 대한 정보) -관련 지역 및 장소 -관련 활동 및 사건
	평가, 폐기, 처분일정 정보	-기록을 남기게 된 이유 (개인에게 이 기록이 갖는 특별한 의미나 가치) -기록을 폐기하게 된 이유
	정리 체계	-연도별, 활동별 등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	이용-재생산	-이용조건 및 재생산조건
연관자료 영역	연관 기록물	-관련 기록물에 대한 정보
	원본 정보	-디지털화한 기록 혹은 박물관의 물리적 위치 -보존상태
	사본 정보	-전자기록 사본의 위치 -보존상태
주기영역	주기	-나의 사후의 기록 관리자 지정, 처분 조건, 이용 조건 등 사후의 기록 처리에 관한 정보
기술통제영역	기술자	-기술한 사람
	기술일자	-기술한 날짜 (최초기술일자, 수정일자, 최종일자)
	기술방식	-글/음성/영상

3) 나의 아카이브 만들기

개인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자신의 기록을 관리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물리적 저장 공간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기록에 대한 검색과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록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⁵⁶⁾ 셋째, 기록을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을까? 이를

56) 전호순, 「대중가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조용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2012, 72쪽.

구축하는 주체가 일반의 ‘개인’이라고 상정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들이 직접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에는 OAI 참조 모델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⁵⁷⁾ 따라서 그 대안은 디지털 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외장하드가 될 수도 있고,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외장하드는 단순히 기록을 보존하는 것만 가능하고, PC에 연결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PC, 스마트폰, 태블릿의 경계를 넘어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사용자와도 그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장하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기록을 보존하는 것 이외에는 기록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지 못한다.

개인이 자신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AtoM을 활용하는 것이다. AtoM 시스템이 수집하는 데이터 단위는 입수기록, 기술, 전자레코드, 소장기록관, 기능, 저작권, 통제어휘 등 7종으로, 이는 ISAD(G)나 ISAAR(CPF)등의 표준들을 적용하고 있다.⁵⁸⁾ 따라서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일단 영어로 되어 있고, 용어도 기록 관리 전문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록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 이를 활용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⁵⁹⁾

일상에서 개인이 손쉽게 자신의 기록을 전자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은 ‘블로그’이다. 특히 포털 블로그는 웹 환경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쉽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으며, 사용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로서 적합하다. 특히 기록 관리의 관점

57) 최원태,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 및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2호, 한국문헌정보학회, 2001, 29~33쪽.

58)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록관리 오픈소스시스템 이해 및 활용」, 2014, 2쪽.

59) ‘AtoM 따라하기’ (<http://osasf.net/uploads/FileUpload/4f/0e44421a6c24460207fd77a8517b5d.pdf>), 인간과기억아카이브 참조.

에서 볼 때, 블로그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모두 차용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생산시점부터 내용·구조·맥락에 관계된 최소한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블로그의 메타데이터를 내용·구조·맥락·기록관리 과정의 메타데이터로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다.⁶⁰⁾

〈표 5〉 블로그의 메타데이터 요소

구분	요소	블로그 요소
내용	표제(TITLE)	제목, 첨부물 제목
	일시(DATE)	등록 날짜/시간
	권한(RIGHTS)	공개범위설정, 콘텐츠 공유설정
	주제어(SUBJECT)	태그설정
구조	포맷(FORMAT)	첨부물 포맷
	크기(EXTENT)	용량, 첨부물 용량, 수
	행위자(AGENT)	블로그 사용자
맥락	관계자(RELATION)	첨부파일
	분류(CLASSIFICATION)	카테고리 선택
	기록관리과정	위치(LOCATION)

블로그는 현대의 기록 분류가 기록이 실제 생산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이며 선형적인 과정인 것처럼, 기록이 실제 생산되기 이전에 카테고리 설정을 통해 여러 기록을 조직화하고 기록들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⁶¹⁾ 또한 기록의 보존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록의 생산이 가능하며, 블로그에 등록된 기록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할 수도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포털 블로그가 본래 기록 관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 관리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첫째, ‘감사증적’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ISO 15489에서는 등록한 기록을 변경할 수 없는

60) 김재호, 앞의 글, 2011, 43쪽, 49쪽.

61) 김재호, 위의 글, 46~47쪽.

것이 일반원칙이고,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사증적을 남겨야 한다는 지침을 제공한다. 그런데 블로그의 경우에는 기록의 수정과 변경이 자유자재로 가능하며, 그에 따른 감사증적도 남지 않는다. 이는 기록의 진본성을 위협할 수 있다.⁶²⁾

둘째, 내보내기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블로그를 제공하는 포털에서 더 이상 블로그를 서비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곳에 저장된 자신의 기록을 다른 공간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블로그들은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의 내용·맥락·구조가 온전하게 구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N포털의 블로그는 등록된 기록을 PDF 형태로 PC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첨부된 파일이나 기록의 공개여부 등은 표시되지 않는다. 단순히 기록이 속한 카테고리, 그 기록의 제목, 내용, 작성일시, 위치(URL) 등만 제공된다. 또한 하나의 PDF에 담을 수 있는 기록의 용량도 제한적이다.⁶³⁾

따라서 블로그와 같이 손쉽게 기록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형태이면서도 아카이브로서의 조건과 기능을 갖춘 ‘아카이브형 블로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증적과 내보내기 기능 이외에도 몇 가지 추가 기능이 요구된다. 첫째, 기록의 등록 시에 개별 기록 건과 첨부파일(컴포넌트)에 고유 식별자가 부여되어야 한다. 기록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기록물을 고유하게 식별하고, 검색 시 접근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록식별자가 필요하다. ISO 15489에서도 등록과정에서 지정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메타데이터의 하나로 이를 꼽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에서도 ‘필수요소’로 지정하고 있다.

62) 김재호, 위의 글, 50쪽.

63) 2011년에 작성된 김재호, 위의 글, 57~58쪽에서는 이글루스의 pdf 백업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능은 이글루스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변경되면서 2014년 3월부터 종료되어, 현재는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다 (<http://ebc.egloos.com/8390>). 이는 아카이브로서의 블로그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비전자기록에 대한 위치와 상태등급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과 그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알림기능이 필요하다. 개인 기록 중 비전자기록은 디지털화하여 아카이브에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가치 있고, 또 유일한 기록이기 때문에 없애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비전자기록을 디지털화하여 등록할 때, 실제로 해당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위치와 그 기록의 상태등급을 입력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태등급을 상·중·하로 설정한다고 가정하면, ‘하’로 설정된 기록은 정기적으로 “기록의 상태를 확인하세요.”와 같은 문구를 블로그 알림 창에 뜨게 하는 것이다.

셋째, 기록의 보존기간 설정기능과 그에 따른 다양한 처분기능이 필요하다. 블로그 서비스 업체의 서버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다 보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설령 모두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요구될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중에 불필요한 기록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록의 생산·등록 시에 보존기간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보존기간의 설정은 개인이 임의로 직접 숫자를 입력하게 하는 것보다도 보존기간을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이를 체크하면 그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보존기간이 책정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처분기능은 폐기 이외에도 전자적으로 생산된 중요한 기록을 출력하거나 내보내기하여 사본을 만들 수 있게 하면 유용할 것이다.

그런데 아카이브를 만들 때에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유산’이란 “사망한 사람이 남긴 디지털 형태의 모든 자료”를 뜻한다.⁶⁴⁾ 즉, 나의 사후에 ‘나의 아카이브’를 어떻게 처리

64) 김원석,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사후(死後) 디지털 유산 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 석사학위논문, 2011, 14~15쪽.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생전에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사후 삭제되어야 하는 기록과 나의 생애를 증거 하거나 추모할 수 있는 기록으로서 꼭 남겨져야 하는 기록을 분류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아카이브에 축적된 개인기록 중 일부는 당시의 다양한 시대상과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를 담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유산으로서의 아카이브와 역사자료로서의 아카이브가 상충할 때, 어떤 가치를 더 우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5. 결론

미국의 역사학자 Gordon, S. Wood는 “각각의 시대는 자기의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쓸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⁶⁵⁾ ‘개인’을 개인기록 관리의 주체로 놓는다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역사를 써 나가는 것을 돕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고도의 기술 환경 속에서 아키비스트의 프리즘으로 만들어진 기록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이용자가 받아들이는 틀에 대한 재고”이기도 하다. 아키비스트가 모든 기록 처리 단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주입하게 됨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⁶⁶⁾ 즉, 개인기록 관리는 단순히 개인의 기록 정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이 미래의 역사 자료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기록 관리와 관련하여 아키비스트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그것은 체계적인 기록 관리의 경험이 적거나 혹은 전무한 개

65) Gordon S. Wood, “Century of Writing Early American Histo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100 1995, p.679 (설혜심, 「트위터와 미시사」, 175쪽에서 재인용).

66) 조민지, 「기록과 기억의 문화정치 : 국가기록 전시의 기호학적 접근」,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14, 26~28쪽.

인을 돕기 위해 ‘아키비스트의 팀’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팀이란, 반드시 전문적인 기록학의 영역에서 도출된 것일 필요는 없다.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들이 시사하듯, 개인의 연령·지식·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기록관리 팁을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개인기록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 국가기록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유산을 활용한 강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교육 프로그램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근거한 ‘기록물관리 중사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상에서 개인이 자신의 기록을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손이 닿기 어려운 민간 영역에서 장차 국가지정기록물이 될지도 모르는 기록을 현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은 개인기록 관리방안을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제시했다. 첫 번째 단계는 하향식으로 자신의 생애를 분석하여 아카이브즈를 파악하고, 이를 컬렉션으로 구성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아카이브를 만들어 관리하는 단계로, 개인기록의 평가·선별과 분류·기술방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개인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아카이브로서, 포털 블로그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개인기록의 관리를 돕기 위해서는 ‘아카이브형 블로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런데 개인기록 중에는 자신의 생애사와 별개로 수집된 ‘특별한 컬렉션’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화폐나 우표, 피규어 등과 같이 개인적인 기호나 관심, 취미 등을 이유로 수집된 것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류의 개인기록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이 ‘특별

할 컬렉션'을 위한 분류·기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개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증거 하는 기록은 아니지만, 개인에게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수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산물로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제3자에게는 그 개인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기록으로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계기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이처럼 본 논문은 개인이 자신의 기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하나의 개인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프로세스가 공공기록 관리의 틀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본 논문의 한계이다. 공공기록과 개인기록은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개인기록은 생산 주체의 성격도 다양하고 그 환경도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형화된 기록을 얻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기록관리'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공기록 관리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기록의 성격을 고려한 새로운 기록관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Management of Personal Archives : How to Make My Archive

Choe, Yu Ri · Yim, Jin Hee

Compared with public archives, personal archives are likely to disappear if creators don't preserve and manage them. So personal archives must be managed by oneself. But it's difficult to manage their archives systematically for people who don't have the expertise in archival science. Besides, there are not enough available informations.

So this thesis suggests how to manage personal archives by two steps. First step is figuring out one's own archives through analyzing one's life by top-down approach and organizing them into collection. Second step is conducting archival appraisal by three steps and establishing classification schemes, describing them. Especially, this study adduce description elements using ISAD(G) for personal archives.

this study also recommends using blogs on portal to manage one's archives easily. But they don't have the audit train and exporting function. So this thesis emphasizes the necessity of 'customized archive blogs'.

At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and manuals for people who are trying to manage one's own archives.

Key words : personal archives, private archives, archives of everyday life, biographical records, life log

